

자원관리도우미 1254명 채용

전북도, 재활용품분리·선별·주민 대상 올바른 배출 방법 계도·홍보

전북도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분리·선별을 도와줄 '자원관리도우미' 1,000여 명을 긴급 채용할 계획이다.

'자원관리도우미'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플라스틱·폐비닐 등)을 분리·선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계도·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인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재활용품 고품질화 실현, 재활용품 수거대란 예방 등의 효과 외에도 공공일자리 확

충을 통한 취업 취약계층 소득안정 등의 기대효과가 전망된다.

도는 1,254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5월부터 채용 절차를 거쳐, 6개월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북은 이번 사업에 국비 144억원을 확보하며, 전국 8,042명 중 15.6%의 비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채용은 14개 시·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채용사이트 등을 활용한 모집공고를 통해 5월부터 진행된다.

선발기준은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시·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는 신원이 확실하고, 근면 성실한 지역주민으로 저소득

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우선선발 가점이 부여된다.

급여는 월 210만원 정도로 운영인력, 기간 등 시·군 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 후 지급될 예정이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재활용품이 배출단계부터 올바른 분리·선별을 통해 고품질자원으로 재활용 되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도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북도 환경보전과(280-3512)나 각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일교차 큰 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식품보관·섭취·개인위생 주의 당부... 유관기관과 식품업소 점검

전북도는 일교차가 큰 봄철에 조리한 음식을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지 않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품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6~2020)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총 46건, 1,584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계절별로는 발생 환자의 48.7%인 771명(24건 52.1%)이 3~5월에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 잘 발생하며,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조리식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은 "전북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및 도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식중독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전북도교육청, 14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취급 식품업소(반찬가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만경강 하천유량 고갈 문제·생태계 건강성 확보 최선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 하천수 공급 관리 체계 강화 환경부 건의

허전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은 지난 4일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을 면담해 만경강 하천수 부족 문제를 언급하고, 하천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하천수의 공급 관리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만경강은 갈수기 상류 경천·대아저수지 등에서 흘러보내는 물의 양이 부족해 하천의 자정능력 감소로 이어져 수질 악화 및 생태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최근 만경강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만경강으로 방류되는 하천유량과 생활·공업·농업용수 사용량을 검토한 결과, 하천 수량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관리기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만경강은 전북도 중심 생활권역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만경강의 최종 종착지가 새만금으로서 만경강의 수질이 곧바로 새만금호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는 관련기관과 만경강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생태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한 적절한 용수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허전 환경복지국장은 "관련 기관들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만경강 하천유량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정한 유량관리를 바탕으로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은 물론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도내 우수 전통식품 적극 홍보 나선다

오늘부터 서울 SETEC 메가쇼서 도 전통식품 홍보관 운영 우체국 쇼핑 연계 특가 기획전 마련 등 온·오프라인 홍보

전북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에서 생산·판매되는 우수 전통식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먼저, 6일부터 서울 강남 SETEC 전시장에서 열리는 메가쇼에 전북도 전통식품 홍보관을 운영,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통식품 홍보 활동을 펼친다.

서울 SETEC 메가쇼는 일상의 다양한 생활 양식에 맞는 질 좋고 경쟁력 강한 제품을 소개하는 곳으로, 국내외 바이어와 유통관계자들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다.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통합 홍보관을 운영하며, 떡·만두, 젓갈, 축산물 조림, 홍삼가공류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30일까지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우체국 쇼핑과 연계한 특가 기획전을 마련해 도내 다양한 우수 상품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선보인다.

진흥원은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의 기획전에서 전북도 전통식품 브랜드관을 별도로 마련해 전국민의 구

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전통 이강주와 오미자주부터 시작해 장아찌, 고추장과 목살 스테이크 등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다양한 식품을 전면 배치해 놓았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수 제품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 경향에 맞는 복고풍 감성을 접목한 상품 디자인 및 홍보관을 구성해 전북도의 전통식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특히 홍보관 운영 과정에서 얻은 관람객, 해외 바이어 호응도 및 음식문화와 트렌드 등을 농식품 가공 수출 자료로 활용해 우수한 전통식품 제품들이 구매약정과 판매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 우울 극복 아이디어 도민제안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 6건에 대해 지난 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 우울 극복 도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

도, 6개 우수 제안 선정... 금상에 '코로나 등 스트레스 치유 위한 건강한 식물환경 조성' 차지

전북도가 코로나 우울 극복 아이디어 도민제안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 6건에 대해 지난 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결과 108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설문조사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개의 우수 제안이 채택됐다.

금상에는 ▲코로나 등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건강한 식물환경 조성(조정현), 은상에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꽃 선물하기(권은진), ▲전북 산림을 통한 휴식의 숲 운영(김태환) 등 2건이 선정됐다.

이어, 동상에는 ▲슬기로운 농촌 생활(류호인), ▲고마워요, 착한가격 Festival(안영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캠핑 떠나기(최수환) 등 3건이 채택됐다.

금상에는 30만원의 시상금이, 은상은 각 20만원, 동상은 각 1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이와 함께, 도는 공모 아이디어에 참여한 모든 도민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지급했다.

금상을 수상한 조정현 씨의 아이디어는 직장인들의 생활공간을 건강한 식물환경으로 조성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조 씨는 "코로나 등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건강한 식물환경 조성 아이디어가 시행돼 코로나로 인한 도민들의 우울감이 치유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한편 한편의 아이디어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느꼈다"며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시책화는 물론 도 및 시·군에서 홍보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https://policy.j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5회 전국 장애인가요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전국장애인가요제를 실시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가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과 지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본부장
김양욱



제전위원장
김철환(주)은혜상사 대표

- 참가대상: 전국의 등록 장애인 만16세 이상
- 참가제외: ① 전국대회에서 대상, 1등, 최우수상 ② 상업적인 성격으로 대회만 나오는 자 ③ 주최 측의 참가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 5층 (사무국) 전화 (063)286-6678, 231-6669
- 기 타: ① 참가비 없음 ② 예선에 불참자는 제외함

● 일시: 2021년 5월 8일 (예선 오전10시, 본선 오후 2시 30분)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주관: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전라북도등록단체)
● 후원: 전라북도 (주)은혜상사, 휴네이처, 새빛장애인자립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수정과 한울타리협의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